

다니엘서 - 제54번

말세의 베일을 벗기다: 다니엘의 이해를 위한 탐구

Jeff Pippenger

2024-01-18

우리는 최근의 한 글을 선지자와 왕들에 나오는 한 구절로 마무리했는데, 그곳에서 화이트 자매는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된 칠십 년의 포로 생활이, 환상 중에 그가 하늘의 방문자가 하나님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기 전에 지나가야 한다고 선언하는 것을 들었던 이천삼백 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이해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이상을 통해 장래의 사건들에 더 많은 빛이 비추어졌다. 이 이상이 끝날 무렵, 다니엘은 "한 거룩한 자가 말하는 것을 들었고, 또 다른 거룩한 자가 말하던 그 거룩한 자에게 이르되, '이 이상이 어느 때까지이겠느냐?'"라는 말을 들었다. 다니엘서 8:13. 주어진 대답, "이천삼백 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14절)는 그를 당혹케 했다. 그는 간절히 그 이상의 의미를 구했다. 그는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된 칠십 년의 포로 생활이, 하나님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기까지 경과할 것이라고 그가 이상 중에 하늘의 사자가 선언한 이천삼백 년과 어떤 관련을 갖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부분적인 해석을 주었으나, 선지자가 "이 이상은 ... 많은 날을 위함이니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기절해 버렸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한다. "나 다니엘이 기절하여 며칠 동안 앓다가, 후에 일어나 왕의 일을 보았노라. 내가 그 이상을 보고 놀랐으나, 그것을 깨닫는 자가 없었느니라." 26, 27절. 선지자와 왕들, 553, 554.

밀러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선포한 기초적 메시지를 완전히 이해하는 데 결코 이르지 못했다.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일곱 때'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주고자 하실 때가 이르자, 그들은 라오디게아의 경험으로 들어갔고, 7년 후에는 '일곱 때'의 빛을 완전히 거절해 버렸다. 그들은 다니엘이 간절히 이해하고자 했던 칠십 년과 이천삼백 년의 온전한 관련성을 끝내 보지 못했다. 다니엘은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한다.

땅이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은,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는 규례를 포함하여, 고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언약의 일부였다. 그 언약에는 7년의 주기가 일곱 번 반복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희년'으로 알려진 축제를 지낼 때, 일곱 번의 7년 주기(49년)가 끝날 무렵 재산과 노예를 해방하고 회복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유대인들은 그 언약의 원칙들에 불순종했으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한 70년의 포로 생활이 그에 앞선 490년의 반역을 뜻한다는 사실을 역대하가 밝히고 있다. 490년 동안, 만약 고대 이스라엘이 레위기 25장에 명시된 대로 그 언약의 지시들을 순종했다면, 그 기간에는 땅이 쉬 해가 모두 70년이 되었을 것이다. 성경에서의 1년은 360일이며, 360일에 7('일곱 번')을 곱하면 2,520일이 된다.

칠십 년은 땅의 안식과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은 "일곱 때"와도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기" 전에 "2,300년"과 "칠십 년의 포로 생활"의 "관계"를 "이해하려고"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chazon" 환상과 "mareh" 환상의 관계를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다. 레위기 25장과 26장의 땅의 안식과

예레미야가 말한 칠십 년의 포로 생활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일 당신이 "일곱 때"가 2,520년의 예언적 기간을 의미한다고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마지막 날들에 다니엘이 대표하는 무리에서 스스로 제외되는 것이다. 밀러주의자들은 "일곱 때"를 시간 예언으로 믿었지만, 재림주의는 더 이상 그렇게 믿지 않는다.

다니엘은 다른 모든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세상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백성을 예표하며, 칠십 년("일곱 때")과 이천삼백 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려는 그의 열망에 대해 화이트 자매가 남긴 언급은 말세의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그 열망을 나타낸다. 이전의 글들에서 밝혔듯이, 1843년과 1850년 도표에 제시된 진리들 가운데 화이트 자매의 저술에서 직접적으로(거듭) 지지를 받지 않는 것은 없다.

말세의 밤중소리 때 밀러의 보석들은 열 배 더 밝게 빛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 보석들은 재림운동의 처녀들에게 주어질 최종 시험을 상징한다. 그 보석들은 하박국의 판들에 제시된 기초 진리들이고, 밀러의 방 한가운데 놓인 탁자 위에 올려졌던 보석함 속의 보석들을 가리킨다. 기초 진리에 대한 시험이 곧 최종 시험이며, 동시에 예언의 신의 권위에 대한 시험이기도 하다. 밀러의 꿈에서 보석들로 예표된 그 기초 진리들을 거절하는 것은 동시에 예언의 신을 거절하는 것이다.

"사탄의 맨 마지막 기만은 성령의 증언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목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한다'(잠언 29:18). 사탄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참된 증언에 두는 신뢰를 흔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과 다양한 통로를 통해 교묘하게 역사할 것이다. 그는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가짜 목시를 들여오고, 거짓을 진리와 뒤섞어서, 사람들이 '목시'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무엇이든 일종의 광신으로 여기도록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정직한 영혼들은 거짓과 진리를 대조함으로써 둘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선택된 메시지, 제2권, 78.

우리는 지금 1798년부터 1844년까지 밀러파의 역사에서 일어난 지식의 증가를 다루고 있지만, 밀러파가 예언적 적용에서는 옳았음에도 그들이 일어나게 된 시대의 역사에 의해 제한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 곧 재림주의의 마지막 세대(네 번째)에 있다. 이 기간 동안 재림주의는 전통과 관습(가짜 보석들)이 너무나 깊이 주입되어 더 이상 기초 진리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지 못하게 되었다. 그 진리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은 재림주의가 그 진리들의 의의를 이해하는 것을 막고, 그 진리들을 보호하고 보존하라는 반복된 명령들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우리가 오래 강의 환상에 대한 가브리엘의 해석으로 더 나아가기 전에, 근본 진리들과 예언의 신의 권위와 관련된 몇 가지 요점을 먼저 다루겠다. 현대 신학자들은 다음 구절이 성경에서 가장 긴 기간 예언이 이천삼백 년임을 밝혀 준다고 주장한다.

그리스도의 초림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던 제자들의 경험은, 그분의 재림의 기별을 선포한 사람들의 경험과 상응하였다. 제자들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도 성경에 제시된 가장 길고 마지막 예언 기간이 막 끝나려 하고 있으며, 심판이 임박했으며, 영원한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선포하였다. 제자들이 때에 관하여 전한 내용은 다니엘 9장의 칠십 이레를 근거로 한 것이었다.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이 전한 기별은 다니엘 8장 14절의

이천삼백 주야의 종료를 알린 것이었는데, 그 이천삼백 주야 중 일부가 바로 그 칠십 이레였다. 각자의 선포는 같은 위대한 예언 기간의 서로 다른 부분의 성취에 근거하고 있었다.

초기 제자들처럼, 윌리엄 밀러와 그의 동료들 역시 정작 자신들이 전한 메시지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교회 안에 오랫동안 자리 잡은 오류들이 그들로 하여금 그 예언의 중요한 요점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므로 비록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기셔서 세상에 전하게 하신 그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그 의미를 오해함으로써 실망을 겪었다. 위대한 논쟁, 351쪽.

그 본문은 “밀러와 그의 동료들은 성경에 제시된 가장 길고 마지막인 예언적 기간이 막 끝나려 한다고 선포했다”라고 말하며, 신학자들은 그 가장 길고 마지막인 예언적 기간이 이천삼백 년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더 나아가 이것이 본문에서 화이트 자매가 지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들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이천삼백 년의 기간을 직접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칠십 년과 이천삼백 년의 기간 사이의 어떤 관련성도 보지 못한다. 그들은 다니엘이 이해하고자 했던 빛에도 눈멀어 있다.

엘렌 화잇은 밀러파 신자였고, 1843년 선구자 도표와 F. D. 니콜스가 출판한 1850년 선구자 도표에 실려 있던 메시지들을 알고 있었다. 니콜스가 제작한 1850년 도표는, 제임스와 엘렌 화잇이 니콜스와 함께 살고 있던 바로 그 시기에 니콜의 집에서 준비되었다. 그 두 도표 모두에 나타나 있는 성경에서 가장 긴 예언의 기간은 2,300년이 아니라 레위기 26장의 ‘칠 때’이다.

이전의 구절이 2,300년을 가장 길고 마지막 예언 기간으로 영감에 의해 지목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화이트 자매의 저술을 자기모순으로 만드는 일이다. 그녀가 이 구절에 대해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를 믿었다면, ‘일곱 때’를 뒷받침하는 도표들을 그녀가 승인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1843년 도표가 주의 손에 의해 인도되었으며, 그것이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그 숫자들이 그분이 원하신 그대로였다는 것과, 그분의 손이 그 위에 있어 몇몇 숫자들 가운데 있는 한 실수를 가리셨으므로, 그분의 손이 거두어지기까지는 아무도 그것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을 보았다.” Early Writings, 74.

자신들의 전통과 꾸며낸 이야기를 지키려는 사람들은 1843년 도표에서 주님께서 “일곱 때”의 오류 위에 손을 얹어 덮어 두셨다가 나중에 그 손을 거두셨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 전제의 문제점은 화이트 자매가 주님께서 도표의 숫자들에서 손을 거두신 때가 언제인지 밝혔다는 점인데, 그분의 손은 첫 번째 실망 직후, 1844년 10월 22일 이전에 거두어졌다는 것이다. 그 사건에 관한 그녀의 증언에서, 고쳐진 실수가 무엇인지 밝히고 있으며, 그 실수는 “일곱 때”가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들의 주님께서 왜 오지 않으셨는지 이해하지 못한, 신실하지만 실망한 이들은 어둠 속에 버려지지 않았다. 그들은 다시 성경으로 인도되어 예언적 기간들을 탐구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 숫자들에서 거두어지자, 그 오류가 해명되었다. 그들은 예언적 기간들이 1844년까지 이어져 있음을 보았고, 예언적 기간이 1843년에 끝난다고 보이기 위해 그들이 제시했던 바로 그 동일한 증거가 그것들이 1844년에 종결될 것임을 증명한다는 것을 알았다.” 초기 문집, 237쪽.

주님의 손이 "계산에서 거두어지고, 그 실수가 설명되었을 때", 그들은 이어서 "예언 기간이 1843년에 끝난다고 보이기 위해 그들이 제시했던 동일한 증거가, 그것들이 1844년에 종결될 것임을 증명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1843년에 끝난다고 여겨졌던 예언 기간들은 1843년 차트에 표시되어 있었는데, 그 차트는 300명의 밀러파 설교자들 각각이 사용하던 차트였다. 그 차트에 표시되어 1843년에 끝난 것으로 여겨졌던 예언 기간들은 다니엘서 8장 14절의 2,300년, 레위기 26장의 2,520년, 그리고 다니엘서 12장의 1,335년이었다. 첫 번째 실망 이후 주님께서 그 실수에서 손을 거두시자, 밀러파는 예언 기간의 종결을 1843년으로 지목했던 바로 그 동일한 증거가 실제로는 그 기간들이 1844년에 끝났음을 증명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1850년 도표는 1850년에 제작되어 1851년 1월에 판매되기 시작했다. 엘렌 화잇은 이 도표가 하박국서의 성취이기도 하다고 기록했는데, 이는 그녀가 1843년 도표에 관해서도 기록했던 바와 같다. 그 도표는 또한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로서 가장 긴 예언 기간을 나타냈다.

"나는 하나님께서 Nichols 형제에 의한 도표의 출판에 함께하셨음을 보았다. 나는 이 도표에 관한 예언이 성경에 있음을 보았으며, 만일 이 도표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면, 그것이 한 사람에게 충분하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하며, 또 어떤 한 사람이 더 큰 규모로 새 도표를 그릴 필요가 있었다면, 모든 사람도 그만큼 꼭 그것을 필요로 한다." Manuscript Releases, volume 13, 359.

밀러파가 "성경에 제시된 가장 길고 마지막 예언적 기간이 곧 끝나려 한다"고 선포했다는 사실에 대한 화잇 자매의 언급은 정확하다.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다. "가장 긴" "예언적 기간"이 2,300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화잇 자매의 증언을 자기모순으로 만들고, 역사적 기록과도 어긋난다. 그런 꾸며낸 이야기를 믿는 것은 곧 거짓을 믿는 것이다. 마지막 때에 거짓을 믿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겪기 위해 기적적으로 어떤 종류의 신적 마취를 스스로에게 가하신 것이 아니었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어떤 피조물도 견딜 수 없는 신적 고통을 겪으셨다. 그럼에도 인류는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영감은 인류가 그가 이기신 것처럼 이겨야 한다고 밝힌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지니신 한 가지 속성 때문이었으며, 인류도 또한 그 속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 믿음의 시작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히브리서 12:1.

예수님은 그분 앞에 놓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셨고, 우리는 그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따라서 목표에 의해 동기부여되는 존재들이다. 그것은 우리의 설계의 일부다. 만일 우리가 재림주의의 기초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믿도록 이끌려 왔다면, 우리는 바로 그것을 하려는 아무런 동기도 갖지 못할 것이다. 그 라오디게아적 상태를 극복하도록 성령께서 불려일으키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동기는 진리에 대한 사랑이다. 진리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가려운 귀를 달래도록 고안된 손쉬운 관습과 전통이 항상 곁에 있음으로써 시험될 것이다. 라오디게아적 안일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진리를 이해하려는 갈망이 없다면 우리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재림주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있다.

다니엘은 말세의 하나님의 백성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70년 포로와 2300년 예언의 관계를 이해하려 할 때 본이 되는 인물이다. 2300년 예언을 가장 길고 마지막 예언 기간으로 규정하는 것은 재림교 신앙의 기초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며, 동시에 예언의 신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다. 밀러파가 가장 길고 마지막 예언 기간을 제시했을 때 그것이 2300년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역사 기록을 거부하는 것이다.

“우리가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 속에서 주신 그분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에만 그러하다.” Life Sketches, 196.

가브리엘은 "mareh"와 "chazon" 두 환상 모두에 대한 이해를 다니엘에게 주기 위해 왔고, 두 환상이 분명히 예언적으로 서로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이 둘을 구분하라고 다니엘에게 지시했다. 그 환상에는 7장과 8장의 성경 예언에 나오는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은 2장에 나오는 바로 그 나라들의 반복과 확대였다. 그 내용에는 하늘의 대화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대화는 한 환상을 하나님의 성소와 백성이 짓밟히는 것으로, 다른 환상을 백성과 성소를 회복하는 사역으로 묘사했다.

가브리엘이 그 해석을 제시했을 때, 그 해석은 결국 밀러주의자들이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이 되었고, 해석을 정신적으로 구분하라는 명령을 이행하는 이들이 주목해야 할 두 환상 사이의 관계가 존재했다. 구별점 가운데 하나는 둘 다 "determined"로 번역되는 두 단어로 나타난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에 대하여 칠십 이레가 정해졌으니, 허물을 끝내고 죄를 그치게 하며, 죄악을 속죄하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것을 기름 부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깨달아 알라. 예루살렘을 복구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감으로부터 기름부음 받은 통치자에게 이르기까지 일곱 이레와 예순두 이레가 있을 것이며, 그때 거리가 다시 세워지고 성벽도 곤고한 때에도 재건될 것이다. 그리고 예순두 이레 뒤에 기름부음 받은 이가 끊어질 것이나 자기 때문이 아니며, 장차 올 한 통치자의 백성이 그 성과 성소를 멸할 것이요, 그 끝은 홍수처럼 임할 것이며, 전쟁의 끝까지 황폐함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들과 한 이레 동안 언약을 굳게 할 것이요,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그치게 하며, 가증한 것들의 퍼짐으로 인해 그가 황폐하게 하리니, 완결에 이르기까지 정해진 것이 황폐한 자 위에 쏟아지리라. 다니엘 9:24-27.

칠십 이레(사백구십 년)가 그 백성과 거룩한 성 위에 작정되었다. “작정되었다”로 번역된 말은 “잘려 나갔다”를 의미하며, 그 단어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을 위한 일정 기간, 곧 유예 기간을 가리킨다. 그것은 또한 예루살렘의 파괴와 칠십 년 포로를 초래한 반역의 기간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리하여 사백구십 년은 셋째 칙령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작정”되었다. 처음의 사백구십 년에 걸친 반역은 느부갓네살의 세 차례 공격과, 결국 예루살렘의 파괴, 그리고 문자적 바벨론에서 문자적 이스라엘이 칠십 년 동안 흩어지고 포로가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첫째 칙령은 포로 생활의 끝과 예루살렘 재건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셋째 칙령은 이천삼백 년 기간의 시작을 알렸다. 첫째 천사의 도래는 영적 이스라엘이 영적

바벨론에서 천이백육십 년 동안 겪은 포로 생활의 끝을 알렸고, 또한 사십육 년 기간의 시작을 알렸다. 그 기간에 그리스도께서는 밀러주의자들을 사용하여 포로 상태에서 나오게 하고 영적 성전을 세우게 하셨다.

26절과 27절에서 두 번 "determined"로 번역된 단어는 "charats"이며, "상처를 입히다"와 "작정"을 뜻한다. 첫째 진노의 끝에 교황권이 치명적인 "상처"를 받도록 예언적으로 "작정되었다". 이는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쓰인 것과 같은 단어다.

그 왕은 자기 뜻대로 행할 것이며, 자기를 높이고 모든 신들보다 자신을 크게 하며, 신들의 신을 대적하여 참람한 말을 할 것이요, 진노가 끝날 때까지 형통하리니, 이는 작정된 일이 이루어질 것임이라. 다니엘 11:36.

36절에서 '왕'은 교황권을 가리킨다. 교황권은 1798년까지 번영하도록 되어 있었고, 1798년에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다. 그때 첫 번째 '진노'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는데, 그 '진노'는 '행해지도록' '결정되었다'(포고되었다). 기원전 723년에 시작되어 1798년에 끝난 이스라엘 북왕국에 대한 첫 번째 '진노'의 끝에, 교황권은 '치명적 상처'를 받았다. 'determined'라는 단어는 '상처'를 의미한다.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치명상을 입은 듯하였는데, 그 치명상이 나았고, 온 땅이 그 짐승을 놀랍게 여겨 따랐다. 요한계시록 13:3.

밀러주의자들의 예언적 체계는 이교와 그 뒤를 이은 교황주의라는 두 가지 황폐케 하는 세력에 기초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 두 세력이 다니엘 8장 13절의 "하존" 환상에 나타난 대로 성소와 군대를 짓밟을 것이라고 이해했다.

그때에 내가 한 거룩한 자가 말하는 것을 들었고, 또 다른 거룩한 자가 말하던 그 어떤 거룩한 자에게 이르되, 매일의 제사와 황폐하게 하는 범죄에 관한 이상, 곧 성소와 군대가 함께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는 일이 어느 때까지이리이까 하더라. 다니엘 8:13.

교황권의 황폐케 하는 세력은 1,260년 동안 성소와 군대를 짓밟을 것이었다.

그러나 성전 밖 마당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들이 마흔두 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을 것이다. 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 것이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천이백육십 일 동안 예언하리라. 요한계시록 11:2, 3.

1798년에 첫 번째 진노가 끝날 때, 예언에 의해 교황권이 '상처를 입도록' 정해져 있었다. 다니엘 9장에서 그 결정은 마지막 두 절에 나타나 있으며, 그 두 절에서 두 번 '작정되었다'로 번역된 단어는 'chazon' 환상과 관련되어 있다. 반면 24절에서 '작정되었다'로 번역된 단어는 다른 히브리어 단어이며 'mareh' 환상과 관련되어 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다니엘은, 가브리엘이 마음속으로 구별해 두라고 일러 준 그 두 환상의 관계를 이해하려 했다.

다음 글에서 이 주제를 계속 다루겠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별을 주고 계시지 않다. 우리는 1843년과 1844년에 우리를 다른 교회들로부터 나오게 한 그 기별을 선포해야 한다." Review and Herald, 1905년 1월 19일.

